

# “별거 아니지만, 누가 처음 했느냐가 중요”

‘친환경 문어 연승낙시용 포획어구’ 등 2개 특허 … 19년전 고향 정착 제2의 인생

## 거진에 사는 ‘발명왕’ 노용수씨

“제가 배움이 부족하지만, 평생 바다와 접하고 살다보니 어업쪽으로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현재까지 특허를 따낸 것 말고도 더 노력해서 새로운 걸 발명해 낼 겁니다.”

거진을 반암리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수리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용수씨(58세, **사진**)가 지난해 여름 특허를 따낸 ‘문어 연승낙시용 포획어구’가 오는 3월부터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26일자로 특허(제10-10563401호)를 받은 ‘문어 연승낙시용 포획어구’는 정부의 친환경 어업정책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고성군의 주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낚을 사용하지 않고 100% 친환경 소재로 어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노씨는 3년간의 연구 끝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낚처럼 적당한 무게를 낼 수 있는 ‘붕돌’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철가루(숫가루)인 ‘씨어티볼’에 본드 효과가 있는 ‘애폭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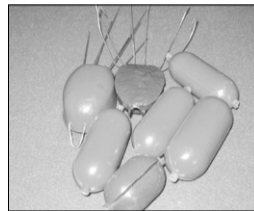
만들어낸 것이다. 이 붕돌에 스텐 재질로 갈고리를 만들어 친환경 문어 낚시가 탄생한 것이다. 특허를 받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거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볼룸부스의 계란’ 과도 같은 노씨의 이런 생각은 그가 발명가의 피를 타고 났음을 말해준다.

친환경 붕돌은 자동화를 할 수 없어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애폭시가 빨리 굳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발된 붕돌은 자망용 붕돌로도 탄생했다. 주로 동해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어 낚시와 달리 자망용 붕돌은 전국 바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친환경 붕돌 발명 외에도 지난해 2월 24일에는 오징어 잡이의 조업시간을



노용수씨가 개발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붕돌.

단축할 수 있는 ‘채낚기 조업용 조상기’ 특허를 따내기도 했다.

거진 출신으로 젊어서 배를 타다 해일을 만나 인근 선박이 침몰되는 광경을 목격한 뒤 바다를 떠났던 노씨는 양양 대한철광에서 잠시 일하다 마산에서 중공업 관련 회사에 취업해 기계 다루는 법 등 각종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19년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2년간 백수 생활을 하다 ‘거진펄프’를 차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거진에 정착한 그는 이후 ‘신우부속’을 차려 현재는 부인 한춘희씨(56세)가 운영



하고, 본인은 지난해 8월 반암리 국도7호 선 옆에 일흥ENG를 오픈했다.

오는 3월부터 전국에 보급될 친환경 붕돌을 생산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그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어업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들을 더 만들어볼 생각”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최광호 기자**

## □새의자 / 거진중고 총동문회 박명재 회장

### “자긍심 고취·지역발전 앞장”

“모교인 거진중고는 대기업 최고 임원, 기업가, 법조계, 고위공직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취임식을 앞둔 거진중고 총동문회 제17대 박명재 회장(56세, **사진**)은 “우리 총동문회는 그동안 역대 선배 회장님들의 훌륭한 지도력과 회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적인 동문회”라고 자랑했다.

그는 “회장을 맡는 동안 우선 동문 회원들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진과 고성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아울러 동문회 내부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어려운 동문 돕기 등을 통해 회원 결집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교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모교 지원사업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박회장은 거진 출신으로 거진중(10회)과 고성고를 졸업했으며, 고성군청 관광기획계장 등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했다. 고성군축구연합회 부회장과 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성문화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고성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이다. 가족은 부인 이재숙씨(54세)와 1남 1녀. **최광호 기자**

## 한우로 이웃돕기 ‘감동’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 한우불고기 70kg 전달

한우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고성지역에서 한우를 기르는 축산인들이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한우 불고기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지부장 이창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황종국 고성군수에게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한우 불고기 70kg(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고성군은 이날 기탁받은 한우불고기를 읍면에 배정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00명에게 전달,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 모두가 훈훈하고 행복한 나눔의 분위기가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우협회 고성군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황종국 군수에게 한우 불고기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 이창갑 지부장은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한우고기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